



대림동성당

(주보성인 : 바오로)

토요 미사	오후 3시 30분 (어린이)
미사	오후 7시 (토요일 저녁 주일미사)
주일 미사	오전 6시 (일반)
	오전 9시 (중고등부)
	오전 10시30분(교중):1~10구역
	낮 12시(교중):11~20구역
평일 미사	오후 6시 (청년)
	월·수·금·토 : 오전 6시
	화·수·목·금 : 오전 10시
	화·목 : 오후 7시 30분

사무실

주임신부(박성우 사도요한)
보좌신부(이상민 바오로)
수녀원 (장 도미니카 수녀)
(천 바울리나 수녀)
연령회회장(정기원 다마스)

TEL : 02-835-1814~5
(FAX : 02-835-1816)
TEL : 02-835-1813
TEL : 02-835-1812
TEL : 02-835-1810
H.P : 010-5476-6833

고해성사	매 미사 후
병자영성체	추후 공지
유아세례	썬수달 두번째 토요일 오후4시30분(사무실에 신청)
혼인면담	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11시 (사무실에 신청)
잠가재차 축복	사무실에 수시로 신청

07440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길 10(대림1동) / 홈페이지 <https://club.catholic.or.kr/daerim1004> / 이메일 daerim1004@hanmail.net

† 영명축일

6월 29일(화)은 ‘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’로
이상민 바오로 신부님과 천미경 바울리나 수녀님의
영명축일입니다.

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부님과 수녀님의 영육간의
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.

※축하식: 6월 27일(주일) 교중미사(오전10시30분) 후

† ‘교황 주일’ 2차헌금

다음 주일인 6월 27일(연중 제13주일)은 ‘교황 주일’입니
다. 세계 평화와 인류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프란치스코 교
황 성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, 교황청으로 보낼 2차헌
금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수령

영등포구청에서는 안전한 종교활동 보장과 코로나19 확산
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우리 본당도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.
영등포구청장님 이하 관계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, 지금
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
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방역물품 수령 내역

- 거치식 비접촉 발열체크기 1대
- KF94 마스크 700개
- 손소독제(500ml) 40병

† 전입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(6월7일~6월13일)

이름	세례명	주소	구역반
이브	루시아	신길동 센트럴자이	10-2

† 성당청소 : 6월 21일(월) 16구역 청소

† 우리들의 정성(6월7일~6월13일)

주일헌금	5,355,200	성소후원금	22,000
교 무 금	9,885,000	군중후원금	10,000
건축헌금	50,000	백신나눔	60,000
감사헌금	염정선 프란치스코	50만원	
	아광연 세레나	20만원	
	최한숙 베로니카	2만원	

[묵상글]

삶이 명에일 때

신앙인은 희망을 먹고사는 사람입니다. 세상살이
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신앙인들은 기쁨을 잃지
않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신앙인은 예수님이 이 세
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믿으며 사
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.

예수님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우리와 함
계 계십니다. 때로는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
것 같아 절망스럽고 도무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
수 없을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. 홀로 어려움과
고통에 내팽개쳐진 듯해서 이 세상이 두렵게만 느
껴질 때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
안에서 함께 아파하고, 함께 절망하고, 함께 슬퍼하
십니다.

가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거운 명에처럼 느
껴질 때면 예수님에게 매달려 봅시다. ‘제발, 저 좀
살려 주십시오.’, ‘제발, 저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.’
라고 간청하면서 말합니다. 그러면 예수님은 아마도
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시겠지요. ‘왜 그리 믿음이 약
합니까?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왜 모릅
니까? 당신의 아픔 안에 있는 나를 왜 느끼지 못합
니까?’

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, 그것
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, 기쁨입니다. 그분과 함께
있으면 풍량은 곧 가라앉습니다.

출처: 박병규 신부 “아침을 여는 3분 피정” 중에서
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지된 내용들은 변경될
수 있습니다.

※평화방송 미사 시간

- 평일(월~토): 06시, 09시, 12시, 18시
- 주일: 06시, 09시, 12시, 18시, 21시